

원저

## 한국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뜬 관련 의료정보 평가

강오석<sup>1</sup>, 박희준<sup>1,2</sup>, 김송이<sup>1,2</sup>, 이혜정<sup>1,2</sup>, 채윤병<sup>1,2</sup>

<sup>1</sup>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소

<sup>2</sup>경희대학교 BK21 한의과학사업단

### Abstract

#### Evaluation of Moxibustion-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Kang O-seok<sup>1</sup>, Park Hi-joon<sup>1,2</sup>, Kim Song-yi<sup>1,2</sup>, Lee Hye jung<sup>1,2</sup> and Chae Youn-byoung<sup>1,2</sup>

<sup>1</sup>Acupuncture and Meridian Science Research Center(AMSRC), Kyung Hee University

<sup>2</sup>BK21 Oriental Medical Science Center,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Despite the substantial amount of newspaper coverage related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n the internet in recent years, little is know about the quality of the health information. To evaluate health information of the newspaper articles on moxibustion available in Korea through Korean language search engines and Web sites.

**Methods** : We searched 454 news stories about moxibustion between 1 January 2006 and 31 December 2008. Among them, 34 internet news coverage related to health information on moxibustion were selected and rated against eight categories by two individuals.

**Results** :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two reviewers was assessed as 0.69, indicating a moderately high level of agreement. The overall rating score for 34 articles was 35.7±17.2 for the statement criteria and 12.9±17.0 for the satisfaction criteria. Overall, although they might be improving recently, the scores remain generally low.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 of the newspaper coverage according to the type of evidence sources, including anecdotes.

**Conclusions** : There is substantial variability in news reporting practices about moxibustion. It is urgently needed to enhance the information related to CAM including moxibustion through the news media in Korea.

**Key words** : moxibustion, health information, internet news, medical journalism

\* 본 연구는 2008년도 경희대학교 신입교수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8-1567)

· 접수 : 2009. 4. 3. · 수정 : 2009. 4. 4. · 채택 : 2009. 4. 4.

· 교신저자 : 채윤병,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2-961-2208 E-mail : ybchae@khu.ac.kr

## I. 서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환자들은 교육 수준의 향상과 의료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의료지식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 서비스 욕구를 보인다. 많은 의사들과 대중들은 의학저널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1)</sup>,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이용하기 쉬우므로 환자에게 의학 지식을 제공하여 의사-환자 상호 작용에서 보조적 정보자원의 역할을 한다<sup>2)</sup>.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료정보는 독자, 청취자, 시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이들의 의료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sup>3)</sup>. 미디어는 소아에서 치명적인 라이 증후군과 아스피린의 관련성을 알려 소아에서 아스피린 사용 양태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sup>4)</sup>. 또한 미디어는 유명 가수의 유방암 발생 소식을 전해 유방암 진단검사 예약 수를 급격하게 늘리는 등 새로운 의료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돕고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sup>5)</sup>.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의학전문기자의 부족 및 정보 비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거가 빈약한 기사가 검증 없이 제공되거나 잘못 해석 보도되기도 하며 정보의 과장 혹은 비약이 있기도 하다<sup>6)</sup>. 미디어를 경유한 의료정보에서는 근거로 하는 보고가 아직 확정적인 정보가 아니거나 부작용 등 꼭 언급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sup>7,8)</sup>.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한편으로 위험하고 한편으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의학정보는 양날의 칼처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와 건강에 대한 미디어의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전달은 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최근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CAM)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up>9)</sup>. 영국과 캐나다에서 암에 관련된 CAM 보도가 의료소비자의 의사결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sup>10,11)</sup>. 이렇듯 미디어를 통한 적절한 의료정보 제공은 의료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아울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한국의 한의학은 독립된 의학 범주로서 의사, 치과 의사와 함께 독자적인 의사면허를 가지는 하나의 의료체계이다.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침, 뜸, 한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의료보험체계의 급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표준용어집에 따르면, 뜸 시술은 특정 경혈 부위에 썩을 재료로 하는 물질을 태워 발생하는 열 자극을 통해 경락과 장부의 기능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sup>12)</sup>. 뜸 시술은 한의학의 주요 치료 수단 중 하나로 한의학 전통 문헌에 ‘一鍼, 二灸, 三藥’이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한의학에서의 뜸의 비중은 크고 임상활용도 다양하다. 뜸 시술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태아의 역위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보고와 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up>13-15)</sup>. 한편 한의학 전통 문헌에서 ‘禁灸’ 등 뜸 시술에서의 금기와 주의사항이 수차례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뜸의 안전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의료인의 지도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른 뜸의 오남용으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sup>16,17)</sup>. 따라서 뜸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절한 뜸 치료기술 이득을 환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뜸 시술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새로 출현한 후 한국에서는 급속도로 인터넷이 보급되어 대중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전달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다<sup>18)</sup>. 최근 조사결과 한국인들은 TV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문기사도 실제 인쇄된 종이 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형태로 접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신뢰도가 TV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있는 매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TV 뉴스 바로 다음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다<sup>19)</sup>. 한국의 의료소비자들이 다른 매체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획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up>20)</sup>. 따라서 환자가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을 경유한 정보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되는 인터넷 신문기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신문기사가 제공하는 뜸 관련 의료정보의 양태를 파악하고 과연 그 기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그 정보는 적절하고 정확한 것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II.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뜬 관련 의료 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 이를 분류하고 신문기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형식과 정보의 질을 평가하였다.

### 1.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뜸'이라 함은灸, moxibustion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쑥을 태워 열, 쑥진, 연기를 통해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신문기사'라 함은 흔히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기사로 인쇄되는 신문지상의 기사와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른 것도 포함한다. '뜸 관련 의료정보 기사'라 함은 환자의 치료에 직결된 뜬 시술상의 정보 혹은 그에 대한 긍정 부정적 의견이 표기된 기사를 말한다. '뜸 관련 의료기기 기사'라 함은 뜬과 관련한 의료기기에 직결된 정보가 표기된 기사를 말한다. '뜸 관련 의료제도/분쟁 기사'라 함은 뜬 치료가 시행되는 법제도적 환경 혹은 시행하는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주장에 관한 기사를 말한다. '뜸 단순 언급'이라 함은 뜬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었으나, 환자의 뜬 치료 시행과 직결되지 않고 뜬 치료가 시행되는 법제도적 환경 혹은 그 주체에 대한 논의나 주장과도 직결되지 않는 언급을 말한다. '뜸 봉사가 열린다', '뜸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뜸을 뜨는 것을 좋아한다' 등 단순한 언급을 포함한다.

### 2.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의 검색

뜸 관련 보도는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수집되고, 전국 발행 일간지 8개사와 통신사 2개사에서 공급하는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는 '뜸'으로 하며, 동음이의어는 최초 검색 수에서 제외하였다. 동음이의어는 '뜸을 들이다' 등이다. 검색기간은 최근 3년 동안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네이버 포털에 공급되지 않는 두 개 일간지의 일부 기간(2006-2007년,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기사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검색하였다.

### 3.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의 분류

1차 거름은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가 의료정보, 의료기기, 의료제도의 세 가지의 특성을 각각 가지는지를 평가하였다. 세 가지 특성은 중복 선택될 수 있으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뜬 단순 언급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하였다. 1차 거름에서 의료정보 특성을 가진 자료는 추가로 자료의 서술 방식이 일화중심적, 상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류하였다.

2차 거름은 의료정보 특성을 가진 자료(의료기기나 의료제도와 중복된 것도 모두 포함됨)를 대상으로 뜬이 주소재가 되는지 부소재가 되는지를 나누었다. 양자택일 방식으로 시행되며 자료에서 언급된 치료수단 중 가장 많이 언급되거나 또는 공동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경우 주소재로 분류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소재로 분류하였다.

### 4.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의 평가 문항 설정 및 평가기준

2차 거름을 통해 의료정보 특성을 가진 자료를 대상으로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의 질을 평가하였다. 평가문항은 총 8문항으로 Bonevski 등이 사용한 10개 문항 중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4개는 삭제되고 1개는 수정되었으며 2개의 문항은 새로 추가하여 구성되었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설정된 문항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단순히 표기한 경우에 점수를 주는 방식과 해당 내용이 표기되고 그 내용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점수를 주는 방식을 병행하였다(Table 1). 평가자가 기사를 보고 문항의 내용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0, 단순히 표기만 되어 있는 경우 1, 표기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2를 주었다. 평가는 경혈학 전공 교수 1인과 침구경락학 전공 전문가 1인의 독립적인 평가로 각각 수행되었다. 평가자간의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카파 통계를 사용하여 총 8문항의 평균  $\kappa=0.69$ (substantial agreement)로 비교적 높은 평가자간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평가자간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자를 포함하여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단순 표기와 만족하는 표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표기기준(표기기준 평가)'과 '만족기준(만족

Table 1. Each Evaluation Items and Two Criteria in the Evaluation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평가 항목	표기기준	만족기준
1) 대상 질환이 표기되어 있다	증상이나 질환의 명칭이 (1회 이상) 표기된 경우	증상이나 질환의 명칭 외에 대상 질환의 증상 특성이나 역학 또는 그 외 세부 설명이 표기된 경우
2) 문헌* 혹은 전문가**에 기반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정보 출처(문헌/전문가 등)가 (1회 이상) 표기된 경우	정보 출처의 세부사항(문헌의 명칭과 호수, 전문가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 근무처, 경력 등)이 언급된 경우
3) 연구에 기반을 둔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기사가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며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잡지에 게재된 연구임이 표기된 경우	그 연구의 제목 또는 저자와 저널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경우
4) 연구결과가 수치로 표기되어 있다	연구결과가 수치로 표기된 경우	연구결과가 상대적 수치로 표기된 경우
5) 해당 질병에 대한 다른 치료법이 표기되어 있다	다른 치료법이 표기된 경우	다른 치료법의 구체적인 비교(예를 들어 장단점)가 언급된 경우
6) 뜸 시술 방법(위치/횟수)이 표기되어 있다	뜸 시술의 위치 또는 횟수에 대해 (1회 이상) 표기된 경우	뜸 시술 위치가 혈명이 정확히 언급된 경우
7) 뜸 시술 근거(이유/원리)가 표기되어 있다	뜸 시술 근거에 대한 원리 설명이 (1회 이상) 표기된 경우	뜸 시술 근거에 대한 원리가 의학, 과학, 한의학적 방법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된 경우
8) 부작용*** 유무가 표기되어 있다.	부작용 또는 유사 의미 단어가 1회 이상 표기된 경우	부작용을 구체적 사례나 증상 등을 들어 설명한 경우

\* : 문헌은 한의학, 의학, 과학 분야의 전문 서적 혹은 관련 저널을 말한다.  
 \*\* : 전문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인 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 업적이 있는 연구자를 말한다.  
 \*\*\* : 부작용이 없다고 명확하게 기술한 경우에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한다.

기준 평가'를 설정하였다. 표기기준 평가의 경우는 0을 비표기로, 1과 2를 표기로 하였다. 8문항을 분모로 하고, 표기된 문항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 값에 100을 곱한 것을 기사의 '표기기준 점수'로 하였다. 만족기준 평가의 경우는 0과 1을 불만족으로, 2를 만족으로 하였다. 8문항을 분모로 하고, 만족한 문항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 값에 100을 곱한 것을 기사의 '만족기준 점수'로 하였다.

### 5.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기술하였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3.0을 사용하였다. 글쓰기 전략 및 소재별, 신문사와 통신사의 뜸 관련 신문기사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사의 글자 수와 기사의 점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검정을 통해 분석했다. 연도별 기사 점수 분포의 차이는 일원분산 분석방법(One way analysis of variance : ANOVA)

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III. 결 과

### 1. 뜸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의 분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54개의 뜸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가 검색되었다. 그 중 뜸 관련 의료정보 신문기사는 137개, 뜸 관련 의료제도/분쟁 신문기사는 65개, 뜸 관련 의료기기 신문기사는 15개였다. 그 외 단순 언급 신문기사는 255개였다. 단순 언급 인터넷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의 한방의료 봉사, 기타 의료기기, 국제경혈위치표준지정, 한방수의학, 한방물리학, 무료 뜸 강좌 등이 주를 이루었다.

뜸 관련 의료정보 신문기사는 137개였고 이 중 일

화 중심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28개, 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것이 27개였다. 검색된 신문기사 중 뜬 관련 의료정보 인터넷 신문기사 137개의 주요 소재는 ① 특정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 설명, ② 뜬 치료법 소개, ③ 뜬 의료제도에 대한 주장, ④ 새로 개발된 유사 뜬 의료기기의 효능 소개 등이었다. 소재를 전달하는 방식은 ① 특정 질환에 대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의 열거, ② 유명 연예인의 치료사례를 통한 치료법 소개, ③ 특정 질환에서 양방 의료 치료와 대조한 뜬 치료법 소개, ④ 뜬 의료제도의 주장 근거로 주장하는 자의 뜬 치료 사례 제시 등이 있었다.

뜬 관련 의료정보 기사 137개 중 뜬 치료 방법이 주소재로 표기된 신문기사는 35개, 뜬이 부소재로 표기된 신문기사는 102개였다. 주소재로 표기된 35개 신문기사 중 2개는 동일하였으므로 최종적인 뜬 관련 의료정보로 간주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소재로 표기된 34개 신문기사 중 일화의 제시 방법으로 쓰인 신문기사는 20개, 뜬 의료제도/분쟁 관련 신문기사는 12개, 상업적 목적이 뚜렷한 신문기사는 2개, 뜬 의료기기 관련 신문기사는 2개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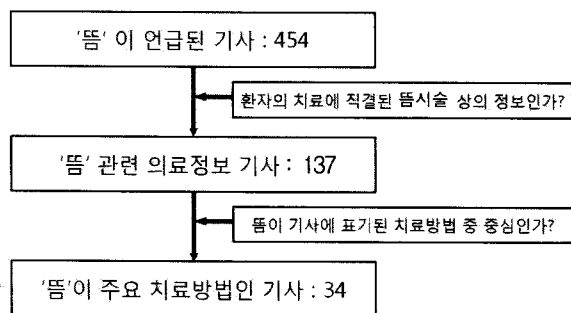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s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 2. 제목별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평가

제목별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4개를 각 문항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각각 표기기준 점수와 만족기준 점수로 하였다. 평가된 34개 신문기사 중 표기기준 점수는 평균 35.7±17.2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문기사는 “안면홍조에 뜬 치료 효과 <한의학연구>”로 87.5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신문기사는 “암투병 효과 장진영 ‘김남수 살리기’나서”로 12.5점이었다. 평가된 34개 신문

기사 중 만족기준 점수는 평균 12.9±17.0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문기사는 “찾은 감기, ‘겨울 뜬’으로 가뽏하게”로 62.5점이었으며 16개의 신문기사가 0점이었다(Table 2).

## 3. 평가항목별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의 평가

각 문항에서 표기기준으로 34개의 신문기사 중 1번 문항(대상 질환이 표기되어 있다) 33개(97.1%), 2번 문항(문헌 혹은 전문가에 기반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8개(23.5%), 3번 문항(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2개(5.9%), 4번 문항(연구결과가 수치로 표기되어 있다) 3개(8.8%), 5번 문항(해당 질병에 대한 다른 치료법이 표기되어 있다) 24개(70.6%), 6번 문항(뜸 시술 방법(위치/횟수)이 표기되어 있다) 14개(41.2%), 7번 문항(뜸 시술 근거(이유/원리)가 표기되어 있다) 9개(26.5%), 8번 문항(부작용 유무가 표기되어 있다) 4개(11.8%)의 신문기사가 표기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서 만족기준으로 34개의 기사 중 1번 문항 10개(29.4%), 2번 문항 8개(23.5%), 3번 문항 2개(5.9%), 4번 문항 0개(0%), 5번 문항 4개(11.8%), 6번 문항 7개(20.6%), 7번 문항 2개(5.9%), 8번 문항 2개(5.9%)의 신문기사가 표기되었다(Table 3).

평가에 포함된 34개의 신문기사 분석에서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정보 표기, 연구 결과가 수치로 표기, 부작용 유무의 표기 등은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근거중심의학에서 중시되는 내용들이 미디어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 4. 글쓰기 전략 및 소재별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비교

글쓰기 전략으로 일화제시 방식을 주로 사용한 신문기사는 34개 중 20개, 일화제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신문기사는 14개였다. 표기기준 점수의 경우 일화제시 방식을 사용한 신문기사가 일화제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신문기사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27.5±7.7 vs. 47.3±20.3, t=3.479, df=15.633, p=0.003). 만족기준 점수의 경우 역시 일화제시 방식의 신문기사가 일화제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신문기사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4.4±6.1 vs. 25.0±20.2, t=3.701, df=14.679, p=0.002).

Table 2. Evaluation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According to the News Headline

기사번호	인터넷 신문기사 제목	표기기준(%)	만족기준(%)
1	[김문 기자가 만난 사람] 94세 현역 '침뜸의 달인' 김남수	37.5	12.5
2	체온을 지켜주는 구들장 돌뜸	37.5	0
3	위암투병 장진영 "침술사 구당선생에게 치료받는 중"	25	0
4	'위암' 장진영, 뜸 치료로 많이 호전돼	25	0
5	박태환 '발바닥 티눈' 한방 쑥뜸치료 받아	25	12.5
6	"국민 남동생 박태환" 사마귀 걱정 마~ 민간요법으로 말끔하게 치료해 줄게	25	12.5
7	암투병 효과 장진영 '김남수 살리기' 나서	12.5	0
8	[아듀! 2008 ②]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연예계를 뒤흔든 말말말	25	0
9	강진 여고생 절반 "생리교육 못 받았다"	25	0
10	<사람들> 여자핸드볼대표팀 첫 팀닥터는 한의사	25	12.5
11	안면홍조에 뜸 치료 효과 <한의학연구>	87.5	50
12	위암 투병 장진영 "건강 많이 좋아졌다"	25	0
13	장진영 위암 투병 근황은?	37.5	0
14	장진영 "희망 안고 힘겨운 치료" 건강회복	25	0
15	<세계수영> 박태환, 귀국 후 발바닥 티눈 수술	25	12.5
16	<박태환 사마귀 쑥뜸 치료..효과는 '글썸'>	25	0
17	뜸 치료 안면홍조에 효과적	75	37.5
18	<박태환, 발바닥 사마귀 민간요법으로 치료>	25	0
19	봄, 쑥으로 입맛을 챙기자	25	25
20	박태환 발사마귀, 뜸으로 없앤다	25	12.5
21	정말 그렇게 아파? 같은 여자도 이해 못해!	37.5	12.5
22	위암 투병 장진영 완치 기대감... "침·뜸치료 병행...상태호전 중"	25	0
23	장진영 "내가 말기암? 많이 좋아졌어요"	25	0
24	[유태우의 서금요법] 내장 편해져 복통·설사 멎게 해	37.5	25
25	[유태우의 서금요법] 눈의 통증 결막염	25	25
26	[참살이 한방] 배꼽 때 잘못 벗기면 복막염	50	12.5
27	[김현탁 칼럼] 남성만의 고통 "전립선질환" A부터 Z까지	62.5	50
28	안면 홍조에 뜸치료 효과	50	37.5
29	[명사의 건강] 3년 전부터 쑥뜸에 빠져 피로 해소·기혈순환 좋아	50	12.5
30	장진영 '구당 김남수 사건' 방송 출연 "침뜸술 효과 봤다"	37.5	0
31	위암투병 장진영 "구당 선생에게 치료받는 중"	25	0
32	전통 구들방 효과 돌뜸이면 해결 한국인의 필수품	37.5	0
33	[100자 건강] 화병(火病)의 해소	37.5	12.5
34	짙은 감기, '겨울 뜸'으로 가뽏하게	75	62.5

Table 3. The Score of Each Evaluation Items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평가 항목	표기기준		만족기준	
	수(n)	비율(%)	수(n)	비율(%)
1) 대상 질환이 표기되어 있다	33	97.1	10	29.4
2) 문헌 혹은 전문가에 기반을 둔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8	23.5	8	23.5
3)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2	5.9	2	5.9
4) 연구결과가 수치로 표기되어 있다	3	8.8	0	0
5) 해당 질병에 대한 다른 치료법이 표기되어 있다	24	70.6	4	11.8
6) 뜬 시술 방법(위치/횟수)이 표기되어 있다	14	41.2	7	20.6
7) 뜬 시술 근거(이유/원리)가 표기되어 있다	9	26.5	2	5.9
8) 부작용 유무가 표기되어 있다	4	11.8	2	5.9

Table 4. Comparison of the Score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Based on the Writing Strategy

	일화제시(n=20)	일화제시 무관(n=14)	p value
표기기준 점수	27.5±7.7	47.3±20.3	0.003
만족기준 점수	4.4±6.1	25.0±20.2	0.004
	의료제도/분쟁(n=12)	의료제도/분쟁 무관(n=22)	p value
표기기준 점수	27.1±7.2	40.3±19.3	0.007
만족기준 점수	1.0±3.6	19.3±18.0	0.000

주요 소재로 뜬 관련 의료제도/분쟁을 언급한 신문기사는 34개 중 12개, 의료제도/분쟁의 소재를 언급하지 않은 신문기사는 22개이다. 표기기준 점수의 경우 뜬 관련 의료제도/분쟁을 언급한 신문기사가 뜬 관련 의료제도/분쟁의 소재를 언급하지 않은 신문기사 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27.1±7.2 vs. 40.3±19.3,  $t=2.879$ ,  $df=29.473$ ,  $p=0.007$ ).

만족기준 점수의 경우 역시 뜬 관련 의료제도/분쟁을 언급한 신문기사가 뜬 관련 의료제도/분쟁의 소재를 언급하지 않은 신문기사 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1.0±3.6 vs. 19.3±18.0,  $t=4.601$ ,  $df=23.966$ ,  $p=0.000$ ).

글쓰기 전략으로 일화제시 방식을 사용한 신문기사와 의료제도 및 분쟁을 언급하는 신문기사의 경우 표기기준 점수와 만족기준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 전략은 적절한 의료정보 제공 방식이 아님을 보여준다(Table 4).

### 5. 신문사와 통신사 인터넷 신문기사 비교

뜬 관련 인터넷 신문 기사 34개 중 8개 신문사에서

나온 신문기사는 25개이고 통신사에서 나온 신문기사는 9개였다. 표기기준 점수의 경우 신문사에서 나온 신문기사와 통신사에서 나온 신문기사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5.0±14.0 vs. 37.5±25.0,  $t=-0.284$ ,  $df=9.860$ ,  $p=0.782$ ). 만족기준 점수의 경우 역시 신문사에서 나온 신문기사와 통신사에서 나온 신문기사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2.0±16.7 vs. 15.3±18.5,  $t=-0.491$ ,  $df=32$ ,  $p=0.627$ ) (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the Score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Based on the Sources of the News

	신문사(n=25)	통신사(n=9)	p value
표기기준 점수	35.0±14.0	37.5±25.0	0.782
만족기준 점수	12.0±16.7	15.3±18.5	0.627

### 6. 연도별 다른 인터넷 신문기사 비교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4개 중 2006년 신문기사

Table 6. Comparison of the Score of Moxibustion 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in Recent Three Years

	2006 (n=4)	2007 (n=8)	2008 (n=22)	p value
표기기준 점수	25.0±0.0	35.9±14.1	37.5±19.3	0.420
만족기준 점수	9.4±6.3	20.3±14.8	10.8±18.6	0.373

는 4개, 2007년 신문기사는 8개, 2008년 신문기사는 22개였다. 표기기준 점수에서 연도별 신문기사는 각각 25.0±0.0, 35.9±14.1, 37.5±19.3으로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892, df=2, p=0.420). 만족기준 점수에서 연도별 신문기사는 각각 9.4±6.3, 20.3±14.8, 10.8±18.6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017, df=2, p=0.373)(Table 6).

### 7. 신문기사의 글자 수와 신문기사의 점수와의 상관관계

뜸 관련 인터넷 신문 기사 글자 수는 747.9±632.4 (범위 97-3544)였다. 글자 수가 97로 최소인 기사는 “[100자 건강]화병(火病)의 해소”(표기기준 점수 37.5, 만족기준 점수 12.5)였으며, 글자 수가 3544로 최대인 기사는 “[김문 기자가 만난사람] 94세 현역 ‘침뜸의 달인’ 김남수”(표기기준 점수 37.5, 만족기준 점수 12.5)였다. 평가된 점수와 글자 수 간 상관관계는 표기기준 점수(Pearson’s R<sup>2</sup>=0.238, p=0.175)와 만족기준 점수(Pearson’s R<sup>2</sup>=0.282, p=0.106)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IV. 고 찰

본 연구에서 최근 3년간 인터넷 신문기사가 제공하는 뜸 관련 의료정보의 양태를 파악하고, 신문기사가 담고 있는 의료 정보의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뜸 관련 의료정보의 제공 현황을 파악하였다. 검색 대상 범위에서 뜸 관련 의료정보의 양태를 살펴보면, 454개의 뜸 언급 신문기사가 있었고, 이 중 34개의 기사는 뜸 관련 의료정보가 주제가 되며 뜸을 주요 치료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뜸 관련 의료 정보를 주제로 한 34개의 신문기사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제시된 표기기준과 만족기준을 미치지 못해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글쓰기 전략 혹은 소개

에 따라 일화 중심의 글 전개 방식이나 의료제도/분쟁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경우 특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최근 3년간 뜸 관련 의료정보를 다루는 신문기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연도별 의료정보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신문사나 통신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최근 3년간의 대상 기간에서 454개의 뜸 관련 신문기사가 검색되었지만, 이 중 34개의 뜸 관련 의료정보 신문기사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특히 단순 언급을 제외한 137개의 신문기사는 뜸과 관련한 의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그 중 100여 개의 신문기사는 다른 치료 수단이 중심이 되는 경우였다. 이는 한의학에 관한 기사에서 치료 방법을 소개할 때 주로 침과 뜸 약이 같이 언급되고, 그 중 주로 침이나 약이 강조되어 소개되고 뜸에 대하여서는 매우 간단한 언급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뜸 관련 의료 정보 인터넷 신문기사 평가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Bonevski 등의 CAM관련 신문미디어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게 응용하여 적용하였다<sup>9)</sup>.

뜸 관련 의료 정보 신문기사의 평가에서 표기기준과 만족기준에서 모두 대부분 기사가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국내의 다수의 인터넷 신문기사가 기본적으로 언급해야 할 의료정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소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캐나다와 영국의 CAM관련 신문기사가 적절하지 않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해외에서 보고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sup>10,11)</sup>. 미국의 약물에 대한 신문기사 역시 꼭 필요한 정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에서 CAM뿐만 아니라 신약, 수술법, 진단법 관련된 신문기사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CAM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 의학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여겨진다<sup>7,9)</sup>. 이러한 의료 건강정보 관련 보도가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사가 생산되어야 하는 상황, 의학정보에 정통한 미디어 인력의 부족, 흥미 위주의 기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독특하거나 논쟁이 되는 소재가 선택되는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이고 많은 양의 정보를 기사로 다 쓸 수 없는 한계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본 연구진에서 제시된 평가항목에서 34개의 뜬 관련 의료 정보 신문기사는 필요한 정보를 표기한 방식을 기준으로 평균 35.7%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내 미디어가 뜬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한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정보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뜬 관련 의료정보 신문기사는 뜬 의료정보가 여타 의료 건강 정보에 비하여 주요 논제가 아니며 뜬이 의료인의 지도 감독 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므로 한 의사 등의 전문가 집단이 언론에 뜬 관련 의료 정보를 제시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평가 항목별 뜬 관련 의료정보 신문기사 중 97.1%가 대상 질환을 표기하여 거의 모든 신문기사에서 표기한 반면에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 제시가 필요로 하는 항목인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신문기사는 5.9%, 효과를 정확한 수치로 표기한 신문기사는 8.8%, 부작용 유무가 표기된 신문기사는 11.8%로 거의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한의학 관련 임상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뜬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다른 한의학 치료방법에 비해 드물어서 신문기사에서도 근거중심의학에 기반을 둔 의료정보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CAM관련 신문기사는 과도하게 긍정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sup>21)</sup>. 임상시험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일화중심의 기술 방식은 CAM사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0)</sup>. 미디어에 요구되는 흥미 위주의 상업적 필요에 의하여 의료정보 전달이 부적절하고 불충분하여,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정확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암환자의 CAM치료에 수반되는 위험(risks), 이익(benefits), 비용(costs)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기사도 부족하여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sup>11)</sup>. 따라서 미디어에서 정확한 의학근거에 기반을 둔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치료방법에 관한 의학적 사실과 그 치료법에 대한 의료수요자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뜬 관련 의료 정보 신문기사의 평가를 위해 표기기준과 만족기준의 두 가지 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34개의 뜬 관련 의료 정보 신문기사 평가에서 특히 표기기준보다 만족기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얻었다. 표기기준에서의 최고점은 87.5점, 평균은 35.1점이었다. 만족기준에서는 최고점이 62.5점, 평균은 12.9점이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0점 기사 나왔기 때문에 문항별 만족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음이 지적될 수도 있다. 각 항목별 평가시 만족기준은 단순한 언급위주의 표기기준과 달리 기술 방식의 적절성을 함께 고려하여 신문기사의 의료정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를 다루는 미디어에서도 최근 의학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거중심의학의 측면에서 의료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족기준을 통해서 표기기준과 다른 척도로 기사를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표기는 했으나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소개하지 않는 기사를 걸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만족기준 분석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글쓰기 전략 및 소재별 뜬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비교를 통해 현재 미디어에서 의료정보를 다루는 형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화제시 방식의 신문기사가 일화제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신문기사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예인 등의 유명인사의 일화를 제시하는 것은 보편적인 글쓰기 전략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명인사에 집중하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언급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일화 제시 방식을 주요 글쓰기 전략으로 채택한 기사들이 그렇지 않은 기사들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다. 둘째, 뜬 관련 의료제도 및 분쟁을 언급한 신문기사가 뜬 관련 의료제도 및 분쟁의 소재를 언급하지 않은 신문기사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의료제도 및 분쟁 위주의 신문기사가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분쟁에서 의료 정보 등이 부가되어 제시될 경우 불충분한 정보나 부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의료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 년간 지속된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갈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관련 정보와 사회 갈등 현상 관련 정보가 혼재되어 제시된 신문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신문기사의 점수 차이는 없었지만 해마다 뜬 관련 의료 정보를 다루는 신문기사의 수는 증가하고, 2006년에 비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신문기사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향후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늘어나리라는 기대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석에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의 길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신문기사의 글자 수와 표기기준 점수 및 만족기준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평가 내용의 길이와 관계없이 포함된 신문기사 내용의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뜬 관련 의료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수집 범위가 최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인 것과 국내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로 국한되고 하나의 검색엔진을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평가자의 자의적 점수 매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2명의 독립적인 평가자가 각각 점수를 주는 방식 등의 시도를 하고 평가자간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지만 평가자의 주관성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CAM관련 의료정보를 평가하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지표를 응용하여 뜬과 관련된 의료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이 적절한 평가지표로서 명확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자료에 대한 평가로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 혹은 한약 등의 다른 한의학 치료 방법과 관련된 신문기사 현황을 함께 조사하였다면 이들의 비교를 통해 다른 CAM요법과 국내 다른 뜬 관련 신문기사의 현황을 비교 고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더 넓은 범주의 뜬 관련 또는 기타 치료 수단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의 근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신문기사에서 언급해야 하는 사항과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여 미디어에서 한의학 관련 의료정보를 다루는 신문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에게 더 양질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한의학 관련 의료 정보의 정확한 제공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Media Doctor (www.mediadoctor.org.au) 같은 건강 관련 신문기사의 정

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평가 혹은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기사가 제공하는 뜬 관련 의료정보의 양태를 파악하고, 과연 그 기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는 적절하고 정확한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검색된 454개의 기사 중 34개의 기사를 8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표기/만족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적용한 글쓰기 전략이 일화 제시 방법을 주로 사용하거나 의료제도 및 분쟁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 특히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현안을 중시하는 한국 미디어의 현황 속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한의학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참고문헌

1. Phillips DP, Kanter EJ, Bednarczyk B, Tastad PL. Importance of the lay press in the transmission of medical knowledge to the scientific community. *N Engl J Med.* 1991 ; 325(16) : 1180-3.
2. Biermann JS, Golladay GJ, Peterson RN. Using the internet to enhance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J Am Acad Orthop Surg.* 2006 ; 14(3) : 136-44.
3. Johnson T. Shattuck lecture-medicine and the media. *N Engl J Med.* 1998 ; 339 : 87-92.
4. Soumerai SB, Ross-Degnan D, Kahn JS. Effects of professional and media warnings about the association between aspirin use in children and Reye's syndrome. *Milbank Q.* 1992 ; 70(1) : 155-82.
5. Chapman S, McLeod K, Wakefield M, Holding S. Impact of news of celebrity illness on breast cancer screening: Kylie Minogue's breast cancer

- diagnosis. *Med J Aust.* 2005 ; 183(5) : 247-50.
6. Paul C. The internet: increasing information, decreasing certainty. *JAMA.* 1998 ; 280(16) : 1454.
  7. Moynihan R, Bero L, Ross-Degnan D, Henry D, Lee K, Watkins J, et al. Coverage by the news media of the benefits and risks of medications. *N Engl J Med.* 2000 ; 342(22) : 1645-50.
  8. Woloshin S, Schwartz LM. Media reporting on research presented at scientific meetings: more caution needed. *Med J Aust.* 2006 ; 184(11) : 576-80.
  9. Bonevski B, Wilson A, Henry DA. An analysis of news media coverag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LoS ONE.* 2008 ; 3(6) : e2406.
  10. Milazzo S, Ernst E. Newspaper coverag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for cancer-UK 2002-2004. *Support Care Cancer.* 2006 ; 14(9) : 885-9.
  11. Weeks L, Verhoef M, Scott C. Presenting the alternative : cancer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Canadian print media. *Support Care Cancer.* 2007 ; 15(8) : 931-8.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WPR.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Manila :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07.
  13. Cardini F, Weixin H. Moxibustion for correction of breech presentation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1998 ; 280(18) : 1580-4.
  14. Coyle ME, Smith CA, Peat B. Cephalic version by moxibustion for breech presentat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5 ; (2) : CD003928.
  15. Guittier MJ, Klein TJ, Dong H, Andreoli N, Irion O, Boulvain M. Side-effects of moxibustion for cephalic version of breech presentation. *J Altern Complement Med.* 2008 ; 14(10) : 1231-3.
  16. Lyu BS, Matsumoto T. Letter: Moxibustion warning. *JAMA.* 1974 ; 230(10) : 1385-6.
  17. Chau N. Moxibustion burns. *J Hosp Med.* 2006 ; 1(6) : 367.
  18.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http://isis.nida.or.kr>
  19. 오수정.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제14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서울 : 한국언론재단. 2008.
  20. 조경원, 감신, 채영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기준을 위한 건강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행태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7 ; 24 : 15-28.
  21. Ernst E, Weihmayr T. UK and German media differ over complementary medicine. *BMJ.* 2000 ; 321(7262) : 707.